

Ⅲ

설문조사 결과

본 장에서는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보험가입 및 미가입 사유에 대해 분석한다.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 연령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연령대별 집단을 응답자의 연령대에 기반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1.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설문 대상자의 사회 전체 관점에서 현재 가장 큰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을 조사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글로벌 위험요소 16개를 포함하여 이중 가장 큰 위험요소부터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생각하는 위험요소의 1순위는 이상기후였으며, 2순위는 전염병, 3순위는 정신건강 악화였다. 연령별·세대별 분포에서도 모두 1순위는 이상기후였으나, 2순위 및 3순위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30대의 경우 다른 응답자들이 전염병으로 응답한 것과 다르게 정신건강 악화가 2순위였다. 3순위의 경우 20대 이하 및 40대는 정신건강 악화, 30대는 전염병, 50대는 기후변화 방지 조치의 실패, 60대는 사회통합 붕괴로 조사되었다.

〈표 Ⅲ-1〉 사회 전체 관점에서 현재 가장 큰 위험요소

(단위: 명)

구분	1위	2위	3위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이상기후	전염병	정신건강 악화	1,065
	30대	이상기후	정신건강 악화	전염병	1,032
	40대	이상기후	전염병	정신건강 악화	1,251
	50대	이상기후	전염병	기후변화 방지 조치의 실패	1,356
	60대	이상기후	전염병	사회통합 붕괴	996
전체	이상기후	전염병	정신건강 악화	5,700	

주: 위험요소에는 이상기후, 생계위기, 기후변화방지 조치의 실패, 사회통합붕괴, 전염병, 정신건강 악화, 사이버보안 실패, 부채위기, 디지털 불평등, 자산버블붕괴, 생물다양성 손실, 천연자원 위기, 비자발적 이민, 지역경제적 대립, 부정적 기술발달, 지역정치적 자원 논쟁을 포함하여 설문하였으며 가장 큰 위험요소부터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받음

다음으로 신체건강, 정신건강, 부채상환, 실직 또는 폐업, 노후준비, 사망준비, 가족간병, 배상책임, 재산상의 손해, 사이버피해와 같은 위험에 대해 평소에 가장 큰 걱정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설문하였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1순위는 신체건강, 2순위는 노후준비, 3순위는 실직 또는 폐업으로 개인의 건강과 경제 상태에 관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1순위 걱정거리는 20대 이하, 30대 및 60대의 경우 신체건강, 40대 및 50대의 경우 노후준비였다. 30대보다 은퇴시기에 가까워지는 40대 및 50대는 은퇴 후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거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1~2순위보다 덜 걱정하는 3순위 경우 20대 이하 및 60대는 정신건강, 30대 및 50대는 실직 또는 폐업, 40대는 부채상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평소 가장 큰 걱정거리

(단위: 명)

구분	1위	2위	3위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신체건강	노후준비	정신건강	1,065
	30대	신체건강	노후준비	실직 또는 폐업	1,032
	40대	노후준비	신체건강	부채상환	1,251
	50대	노후준비	신체건강	실직 또는 폐업	1,356
	60대	신체건강	노후준비	정신건강	996
전체	신체건강	노후준비	실직 또는 폐업	5,700	

주: 평소 가장 큰 걱정거리에는 신체건강, 정신건강(우울증, 치매 등), 부채상환, 실직 또는 폐업, 노후준비, 사망준비, 가족간병, 배상책임, 재산상의 손해(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사이버피해(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를 포함하여 가장 큰 걱정거리부터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받음

2.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가. 건강위험 및 간병

1) 신체적 건강

평소에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염려정도는 6점 척도로 응답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4.2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염려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이하의 염려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염려정도에 대한 연령대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⁷⁾

〈표 III-3〉 평소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매우 걱정								
연령대	20대 이하	2.5	7.6	18.6	37.7	25.6	7.9	4.00	355
	30대	0.6	7.0	14.0	34.6	33.4	10.5	4.25	344
	40대	0.2	4.8	12.9	40.8	31.7	9.6	4.28	417
	50대	1.3	4.6	14.8	36.5	33.6	9.1	4.24	452
	60대	1.2	6.9	14.5	32.5	36.1	8.7	4.22	332
전체	1.2	6.1	14.9	36.6	32.1	9.2	4.20	1,900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신체적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3.97***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와 더불어 관련된 위험 대비수준에 대한 정도도 조사하였다.⁸⁾ 전체 응답자의 6점 척도 기준 평균 대비정도의 점수는 3.68이었다. 조사 결과 30대

7) 본 장에서 연령대별 평균 차이는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해 검정했으며, 검정 통계량(F-값)과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기호(*** 1% 수준, ** 5% 수준,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를 각 결과표의 주에 추가하였음

8) 본 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에 대한 정도는 위험에 대한 응답자의 객관적인 준비 상황이라기보다 위험 대비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가까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의 대비정도가 가장 높았으나, 40대 및 60대의 대비정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 이하의 대비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4〉 평소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충분히 준비 →	평균 점수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2.5	13.8	25.9	40.6	14.4	2.8	3.59	355
	30대	2.6	11.6	23.0	39.0	18.9	4.9	3.75	344
	40대	2.4	8.9	23.5	47.5	15.6	2.2	3.71	417
	50대	2.2	15.0	22.8	38.3	19.0	2.7	3.65	452
	60대	2.7	12.3	21.1	40.4	21.4	2.1	3.72	332
전체	2.5	12.4	23.3	41.2	17.8	2.9	3.68	1,900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29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으로 보험가입,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및 영양제 섭취, 정기건강검진, 의료비용 마련을 위한 저축, 기타를 포함해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정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응답받았으며, 조사 결과 20대는 규칙적인 운동, 30대 및 40대는 보험가입, 60대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신체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젊은 연령층과 여가활동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고연령층은 규칙적인 운동 등 신체활동으로 관련 위험에 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 경제활동 층인 중·장년층은 보험상품을 활용해 관련 위험에 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5〉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구분	보험가입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영양제 섭취	정기 건강검진	의료비용 마련을 위한 저축	기타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56.6	61.3	50.9	37.3	22.3	0.7	346
	30대	71.3	54.6	57.0	56.1	19.1	0.8	335
	40대	69.8	54.5	52.6	65.6	18.9	1.7	407
	50대	68.3	62.7	64.3	65.4	16.7	0.6	442
	60대	57.3	71.5	71.2	69.3	18.9	0.5	323
전체	65.1	60.7	59.1	59.2	19.1	1.8	1,853	

2) 정신적 건강

평소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도 6점 척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3.22이며, 30대 응답자의 염려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20대 응답자의 염려정도도 30대 응답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 60대 응답자의 염려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연령층일수록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6〉 평소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매우 걱정								
연령대	20대 이하	12.7	16.1	14.6	30.7	19.2	6.8	3.48	355
	30대	10.8	18.9	16.9	27.3	16.0	10.2	3.49	344
	40대	11.0	22.8	18.0	28.5	15.1	4.6	3.28	417
	50대	14.8	25.7	19.7	23.2	13.3	3.3	3.04	452
	60대	19.0	30.4	17.5	20.8	9.0	3.3	2.80	332
전체	13.6	22.8	17.5	26.1	14.5	5.5	3.22	1,900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정신적 건강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정신적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5.28***

전체 응답자의 평소 정신적 건강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6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3.18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대비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대비정도가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7〉 평소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충분히 준비								
연령대	20대 이하	12.1	22.8	23.9	24.5	11.8	4.8	3.15	355
	30대	11.0	20.6	26.5	27.3	12.2	2.3	3.16	344
	40대	11.5	20.4	30.7	25.2	9.6	2.6	3.09	417
	50대	8.2	25.0	26.1	26.3	11.3	3.1	3.17	452
	60대	7.5	18.1	25.0	33.7	13.3	2.4	3.34	332
전체	10.1	21.6	26.6	27.2	11.5	3.1	3.18	1,900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2.00*

평소 정신적 건강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의 대비방법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 대부분 연령대에서 명상을 통한 위험대비가 가장 높았으나, 60대의 경우 지역사회 참여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한 위험대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III-8〉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구분	명상	지역사회 참여,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약 처방	심리 상담	기타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40.1	22.4	15.4	8.7	10.9	30.1	346
	30대	38.9	25.5	15.7	14.7	15.7	29.7	335
	40대	42.5	23.3	20.1	8.7	8.1	21.7	407
	50대	36.9	32.0	23.1	8.7	3.9	22.7	442
	60대	29.6	41.0	29.3	10.4	3.6	18.2	323
전체	37.7	28.8	20.8	10.1	8.1	24.3	1,900	

주: “어떤 방법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3) 자신의 간병

자신의 간병에 대한 염려정도는 조사 결과, 50대 응답자의 염려정도가 가장 높다고 나타났으나, 60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간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9〉 향후 자신의 간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매우 걱정								
연령대	20대 이하	7.9	10.7	17.7	31.8	21.7	10.1	3.79	355
	30대	3.5	14.8	13.7	25.3	27.9	14.8	4.04	344
	40대	1.9	8.6	13.7	29.5	31.4	14.9	4.24	417
	50대	3.1	6.4	11.9	31.6	32.5	14.4	4.27	452
	60대	1.5	8.4	14.2	30.7	28.9	16.3	4.26	332
전체	3.5	9.6	14.1	29.9	28.8	14.1	4.13	1,900	

- 주: 1) “귀하께서는 향후 자신의 간병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자신의 간병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9.67***

다음으로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협에 대해 설문하였다. 자신의 간병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대비하고 있는 가능성이 작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련 위협에 대한 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Ⅲ-10〉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충분히 준비								
연령대	20대 이하	23.9	26.0	25.7	19.3	4.9	0.3	2.56	327
	30대	19.6	27.1	25.6	19.3	6.6	1.8	2.72	332
	40대	16.6	23.2	25.2	26.4	7.8	0.7	2.88	409
	50대	13.7	25.3	24.9	26.3	9.6	0.2	2.93	438
	60대	11.9	25.4	27.2	25.1	9.8	0.6	2.97	327
전체	16.9	25.3	25.6	23.6	7.9	0.7	2.82	1,900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귀하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6.66***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에 관해 위험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40대 이상부터는 대부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치매 또는 간병보험 같은 민영보험을 활용한 위험대비 비중도 대략 20% 내외로 개인저축을 통한 위험대비보다는 낮지만, 요양시설 검색을 통한 위험대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엔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 가장 높은 위험대비 방법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11〉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구분	장기 요양 보험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	치매 또는 간병 보험	요양 시설 검색	전문 돌봄 서비스 검색	간병 전문가 상담	기타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36.9	45.8	13.7	9.6	7.6	4.4	13.7	249
	30대	53.9	51.7	17.2	13.9	15.7	4.5	5.2	267
	40대	65.1	37.2	19.1	12.0	10.3	0.9	3.2	341
	50대	67.7	37.6	22.5	18.5	11.9	1.3	5.3	378
	60대	67.0	37.2	23.3	15.6	16.7	4.5	3.8	288
전체	59.6	41.2	19.5	14.2	12.4	2.9	5.9	1,523	

주: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4) 가족간병

앞서 살펴본 응답자 본인의 간병에 대하여 향후 가족간병을 예상하는 응답자에 한하여 가족의 간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도 조사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 40대, 6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염려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혹은 배우자에 대한 간병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는 40~50대가 가족의 간병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응답자 표본 수가 128명에 불과해 조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Ⅲ-12〉 향후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매우 걱정								
연령대	20대 이하	0.0	16.7	16.7	50.0	16.7	0.0	3.67	6
	30대	0.0	6.7	0.0	46.7	6.7	40.0	4.73	15
	40대	5.3	0.0	5.3	21.1	26.3	42.1	4.89	19
	50대	0.0	1.8	3.5	17.5	45.6	31.6	5.02	57
	60대	0.0	9.7	0.0	29.0	25.8	35.5	4.77	31
전체	0.8	4.7	3.1	25.8	32.0	33.6	4.84	128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가족의 간병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2.16*

가족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20대 이하, 50대, 60대, 40대, 30대 순으로 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 이하의 경우 응답자 수가 6명에 불과해 표본 대표성과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13〉 가족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충분히 준비								
연령대	20대 이하	0.0	16.7	33.3	16.7	16.7	16.7	3.83	6
	30대	33.3	20.0	13.3	33.3	0.0	0.0	2.47	15
	40대	21.1	31.6	26.3	5.3	10.5	5.3	2.68	19
	50대	14.0	26.3	21.1	26.3	8.8	3.5	3.00	57
	60대	12.9	22.6	25.8	32.3	6.5	0.0	2.97	31
전체	16.4	25.0	22.7	25.0	7.8	3.1	2.92	128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가족간병 부담 증가와 관련된 위험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38

가족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으로는 20대 이하는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 30대, 40대 및 60대는 장기요양보험, 50대는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 또는 간병보험의 민간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 대비는 모든 연령대에서 20% 미만의 응답자가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표 Ⅲ-14〉 가족의 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구분	장기 요양 보험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	치매 또는 간병 보험	전문 돌봄 서비스 검색	간병 전문가 상담	직접 간병 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타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33.3	66.7	16.7	16.7	0.0	16.7	0.0	6
	30대	80.0	60.0	10.0	10.0	0.0	20.0	0.0	10
	40대	40.0	40.0	13.3	13.3	0.0	6.7	26.7	15
	50대	24.5	59.2	10.2	32.7	10.2	16.3	6.1	49
	60대	55.6	40.7	18.5	22.2	14.8	14.8	0.0	27
전체	40.2	52.3	13.1	24.3	8.4	15.0	6.5	107	

주: “어떤 방법으로 가족간병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나. 은퇴

은퇴상태에 있지 않은 1,670명의 미은퇴자에 대해 은퇴 준비에 대한 염려정도를 조사하였다.⁹⁾ 미은퇴자 중에서 법정정년연령인 60세 이상인 60대 응답자도 16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종사하는 직업에서 정한 정년연령 혹은 본인의 의사 등으로 계속 근무하여 은퇴하지 않은 응답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 법정정년연령인 60세에 가까운 50대보다 40대의 염려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15〉 은퇴 준비에 대한 염려정도(미은퇴자)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매우 걱정								
연령대	20대 이하	4.5	14.4	16.6	33.5	20.6	10.4	3.83	355
	30대	3.8	9.4	14.1	26.2	27.6	18.8	4.21	340
	40대	1.0	4.6	10.0	27.1	37.4	19.8	4.55	409
	50대	0.2	5.4	15.1	25.5	35.1	18.6	4.46	404
	60대	2.5	9.3	18.5	22.8	29.6	17.3	4.20	162
전체	2.3	8.3	14.3	27.5	30.5	17.1	4.27	1,670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엔 은퇴 준비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은퇴준비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9.23***

미은퇴자의 은퇴 예상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은퇴시기에 가깝지 않은 20대 이하, 30대, 40대의 평균 은퇴 예상 연령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령대별 은퇴 예상 연령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9) 미은퇴자가 아닌 은퇴자(230명)의 은퇴 사유 및 은퇴 생활 등에 관한 조사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Ⅲ-16〉 은퇴 예상 연령(미은퇴자)

(단위: %, 명)

구분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평균 연령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21.4	33.5	27.6	14.4	3.1	61.39	355
	30대	24.7	28.8	28.2	14.1	4.1	61.36	340
	40대	18.3	38.4	27.4	13.4	2.4	61.85	409
	50대	11.1	36.4	34.9	14.6	3.0	63.44	404
	60대	0.0	24.1	34.0	29.6	12.3	67.27	162
전체		16.8	33.5	30.1	15.6	4.0	62.56	1,670

주: 평균차이 검정 F-값: 11.35***

미은퇴자의 은퇴에 대한 대비정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나이가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대비정도가 높다고 응답하는 성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 은퇴에 대한 대비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Ⅲ-17〉 은퇴에 대한 대비정도(미은퇴자)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충분히 준비							
연령대	20대 이하	19.7	27.6	23.4	23.1	4.8	1.4	2.70	355
	30대	21.2	20.3	22.1	28.8	5.6	2.1	2.84	340
	40대	14.4	24.7	23.0	28.6	8.3	1.0	2.95	409
	50대	11.4	21.8	19.1	35.6	11.1	1.0	3.16	404
	60대	8.6	19.8	19.8	35.2	12.3	4.3	3.36	162
전체		15.6	23.2	21.6	29.8	8.1	1.6	2.96	1,670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엔 은퇴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1.35***

미은퇴자의 향후 은퇴에 대한 대비방법을 공적연금, 사적연금, 예금·적금·저축성보험, 주식·채권, 수익증권, 부동산, 자녀에 대한 투자, 기타를 포함해 조사하였다. 모든 연령대에

서 국민연금을 통한 대비가 가장 높았으나, 6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 자의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대비방법도 50%에 근접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개인연금을 이용한 은퇴 대비도 47.2%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한 은퇴 대비는 10% 내외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은퇴에 대한 대비방법(미은퇴자)

(단위: %, 명)

구분	국민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	주택 연금	예금· 적금· 저축 성 보험	주식· 채권	수익 증권	부동 산	자녀 에 대한 투자	기타	응답 자 수	
연 령 대	20대 이하	58.6	32.3	27.7	7.0	47.7	35.4	7.0	13.3	0.7	1.8	249
	30대	72.4	41.0	38.8	4.9	48.9	39.2	6.3	23.1	0.4	1.9	267
	40대	79.4	36.6	39.7	11.1	48.6	36.6	6.0	35.4	2.6	2.0	341
	50대	86.3	41.6	47.2	8.1	48.6	36.9	6.7	31.3	3.6	1.4	378
	60대	77.0	33.8	39.2	12.8	41.9	23.6	1.4	25.7	2.7	4.1	288
전체	75.4	37.5	39.0	8.5	47.8	35.6	6.0	26.5	2.1	2.0	1,523	

주: “어떤 방법으로 은퇴 후 소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다. 사망

자신의 사망에 대한 대비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사망에 대한 대비정도의 평균 점수는 2.60으로서 중간척도점수인 3.00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에 대한 대비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19〉 자신의 사망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충분히 준비								
연령대	20대 이하	34.4	29.6	16.1	14.4	4.8	0.8	2.28	355
	30대	36.0	23.3	15.7	19.5	5.2	0.3	2.35	344
	40대	27.1	25.2	23.0	18.5	5.3	1.0	2.53	417
	50대	17.7	27.9	21.2	24.8	7.3	1.1	2.79	452
	60대	16.0	19.0	24.4	27.7	11.7	1.2	3.04	332
전체	25.9	25.2	20.2	21.0	6.8	0.9	2.60	1,900	

- 주: 1) “귀하께서는 자신의 사망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자신의 사망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 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21.58***

사망 관련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사망 관련 준비 방법에 대해 ‘유언장’, ‘사전의료 지시서 또는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중요한 문서들의 정리 및 보관’, ‘장례 준비 및 비용 마련’, ‘사후 디지털자산 정리 방법 마련’을 포함해 설문하였다.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준비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의 사망 관련 준비 방법 중 가장 높게 응답된 ‘장례 준비 및 비용 마련’을 통해 사망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에 불과했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례 준비 및 비용 마련을 통해 사망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사망 관련 준비 여부

(단위: %, 명)

구분	유언장	사전 의료 지시서 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중요한 문서들의 정리 및 보관	장례 준비 및 비용 마련	사후 디지털자산 정리 방법 마련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6.2	4.6	8.4	6.8	6.2	344
	30대	2.9	3.1	6.0	4.9	3.3	337
	40대	2.3	4.0	6.1	8.0	3.8	411
	50대	2.4	4.8	5.4	10.2	2.7	448
	60대	2.9	9.7	9.8	19.9	5.0	328
전체	3.3	5.1	7.0	9.8	4.1	1,868	

- 주: 1) 사망관련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설문대상으로 하였음
 2) 각 준비방법에 대해 ‘준비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나타냄

라. 소득흐름

1) 실직

소득흐름 위험과 관련해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직에 대한 염려정도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 경제활동 층인 40대 및 50대에서 실직에 대한 염려정도가 높았으며, 3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염려정도가 낮았다. 연령 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Ⅲ-21〉 실직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매우 걱정								
연령대	20대 이하	16.7	20.4	19.9	25.0	13.0	5.1	3.13	216
	30대	11.6	25.4	20.5	22.1	12.5	7.9	3.22	303
	40대	7.6	20.4	18.1	23.3	18.7	12.0	3.61	343
	50대	7.0	18.8	16.1	25.5	21.5	11.2	3.69	330
	60대	10.6	15.6	20.0	24.4	17.5	11.9	3.58	160
전체	10.1	20.6	18.6	24.0	16.9	9.8	3.46	1,352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실직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실직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8.04***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60대, 20대 이하, 50대, 40대, 30대 순으로 평균적인 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22〉 실직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충분히 준비								
연령대	20대 이하	9.3	21.3	24.5	31.5	10.6	2.8	3.21	216
	30대	15.8	27.7	24.1	20.5	8.6	3.3	2.88	303
	40대	12.8	26.2	27.1	22.4	8.7	2.6	2.96	343
	50대	13.9	22.1	23.0	27.6	11.2	2.1	3.06	330
	60대	9.4	18.1	21.9	25.0	19.4	6.3	3.46	160
전체	12.8	23.8	24.4	25.0	10.9	3.1	3.07	1,352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실직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6.43***

실직위험에 대한 대비정도에서 중간(6점 척도 중 3점)이상인 자에 한해 어떤 방법으로 실직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지 설문하였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실직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 부업 마련,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통한 위험대비정도는 20대 이하가 가장 높았고, 30대가 가장 낮았다.

〈표 III-23〉 실직과 관련된 위험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구분	직업훈련	저축	부업 마련	기타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78.4	37.1	49.5	7.2	97
	30대	70.4	37.8	46.9	3.1	98
	40대	75.9	33.6	33.6	4.3	116
	50대	74.8	31.9	17.8	5.9	135
	60대	74.1	34.6	17.3	8.6	81
전체	74.8	34.7	32.4	5.7	527	

주: “어떤 방법으로 실직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폐업

소득위험에 관한 위험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에 관해 얼마나 염려하는지 설문하였다. 응답자 표본 수가 155명에 불과해 결과를 해석할 때 대표성 및 신뢰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폐업에 대한 염려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4〉 폐업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매우 걱정								
연령대	20대 이하	25.0	12.5	25.0	12.5	12.5	12.5	3.13	8
	30대	16.7	33.3	16.7	16.7	0.0	16.7	3.00	6
	40대	0.0	21.6	13.5	37.8	16.2	10.8	3.81	37
	50대	4.8	11.3	12.9	27.4	35.5	8.1	4.02	62
	60대	9.5	4.8	16.7	16.7	31.0	21.4	4.19	42
전체	6.5	12.9	14.8	25.8	27.1	12.9	3.93	155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폐업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성향점수가 상승할수록 폐업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78

앞서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폐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0대, 60대, 30대, 20대 이하, 50대 순으로 대비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5〉 폐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충분히 준비								
연령대	20대 이하	25.0	12.5	0.0	50.0	12.5	0.0	3.13	8
	30대	16.7	16.7	33.3	16.7	0.0	16.7	3.17	6
	40대	10.8	8.1	27.0	43.2	8.1	2.7	3.38	37
	50대	17.7	14.5	30.6	22.6	12.9	1.6	3.03	62
	60대	16.7	21.4	11.9	26.2	14.3	9.5	3.29	42
전체	16.1	14.8	23.2	29.7	11.6	4.5	3.19	155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폐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0.42

폐업과 관련된 위험 대비방법에 대해서 비상계획 수립,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구상, 구직 준비, 저축, 기타를 포함해 설문하였다. 20대 이하의 경우엔 구직 준비와 저축, 30대 이하의 경우에도 구직 준비와 저축 그리고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구상, 40~60대의 경우에도 저축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비상계획수립, 구직 준비 보다도 저축을 통해서 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폐업과 관련된 위험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구분	비상계획 수립	새로운 사업아이디어 구상	구직 준비	저축	기타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0.0	0.0	60.0	60.0	0.0	5
	30대	0.0	50.0	50.0	50.0	0.0	2
	40대	25.0	45.0	20.0	50.0	5.0	20
	50대	30.4	43.5	34.8	47.8	4.3	23
	60대	38.1	23.8	14.3	66.7	14.3	21
전체	28.2	35.2	26.8	54.9	7.0	71	

주: "어떤 방법으로 폐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마. 재산손해

1) 일상생활 배상책임

재산손해에 관한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조사로 먼저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는지 설문하였다. 6점 척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3.93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40대, 5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관련 위험에 대해 염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Ⅲ-27〉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매우 걱정								
연령대	20대 이하	5.6	19.7	21.4	31.3	16.1	5.9	3.50	355
	30대	5.5	17.7	25.3	27.6	16.6	7.3	3.54	344
	40대	2.9	17.0	21.8	35.5	17.5	5.3	3.64	417
	50대	2.9	19.5	23.2	31.6	17.7	5.1	3.57	452
	60대	5.1	16.3	18.1	34.3	18.1	8.1	3.68	332
전체	4.3	18.1	22.1	32.2	17.2	6.2	3.93	1,900	

주: 1)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예를 들어, 수도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반려견이 타인을 무는 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남의 차에 흠집을 내는 사고 등)”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2.39*

응답자의 평소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40대의 대비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의 대비정도가 가장 낮았다. 60대의 경우엔 40대 다음으로 위험에 대해 대비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Ⅲ-28〉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충분히 준비								
연령대	20대 이하	16.1	27.6	26.5	22.5	6.5	0.8	2.78	355
	30대	17.2	23.3	21.8	25.9	8.7	3.2	2.95	344
	40대	9.6	23.5	21.8	28.8	12.2	4.1	3.23	417
	50대	14.6	21.2	21.2	25.7	15.3	2.0	3.12	452
	60대	14.8	20.5	21.7	22.0	17.2	3.9	3.18	332
전체	14.3	23.2	22.5	25.2	12.1	2.8	3.06	1,900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6.97***

다음으로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는데,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49.6%), 저축 등을 통한 비상기금 마련(48.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42.4%) 순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저축 등을 통한 비상기금 마련을 통해 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30대 이상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조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으며, 40대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 Ⅲ-29〉 일상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구분	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	일상생활배상책 임보험 가입	저축 등을 통한 비상기금 마련	기타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59.1	20.8	64.4	1.3	298
	30대	44.9	41.1	51.2	0.4	285
	40대	47.2	54.6	41.1	0.8	377
	50대	45.6	48.4	40.7	2.6	386
	60대	53.0	41.7	46.6	1.1	283
전체	49.6	42.4	48.0	1.3	1,629	

주: “어떤 방법으로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재산 손해(화재, 도난 등)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해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는지 조사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염려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 응답자의 염려정도가 가장 낮았다. 다만,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30〉 재산상의 손해(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매우 걱정								
연령대	20대 이하	9.0	24.8	21.4	30.4	11.8	2.5	3.19	355
	30대	5.5	25.3	21.8	29.9	11.6	5.8	3.34	344
	40대	4.8	21.8	24.9	31.9	11.3	5.3	3.39	417
	50대	3.1	27.7	22.6	29.9	13.5	3.3	3.33	452
	60대	4.5	28.9	20.8	25.0	14.8	6.0	3.35	332
전체	5.3	25.6	22.4	29.6	12.6	4.5	3.32	1,900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재산상의 손해(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1.36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의 평균 점수는 2.90이며, 중간점수인 3.00보다 낮아 평균적으로 대비정도의 중간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앞서 염려정도와 유사하게 40대가 대비정도가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의 대비정도가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31〉 재산상의 손해(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충분히 준비							
연령대	20대 이하	16.9	23.1	29.3	22.5	6.5	1.7	2.84	355
	30대	17.4	29.4	23.3	22.7	5.5	1.7	2.75	344
	40대	10.8	25.9	27.1	27.3	7.0	1.9	3.00	417
	50대	14.8	25.9	22.8	26.5	9.1	0.9	2.92	452
	60대	15.1	25.6	21.1	25.6	10.2	2.4	2.98	332
전체		14.8	25.9	24.7	25.1	7.7	1.7	2.90	1,900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2.47**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문하였는데, 전체적인 분포를 기준으로 도난방지장치, 화재방지 등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 대비는 35.4%에 불과했다. 20대 이하 및 30대 응답자의 경우 저축 등을 통한 비상기금 마련을 통한 위험대비가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보험가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구분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	보험가입	저축 등을 통한 비상기금 마련	기타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59.0	23.1	63.7	0.7	295
	30대	54.2	33.8	61.6	0.4	284
	40대	61.6	41.1	47.3	1.1	372
	50대	54.3	39.7	51.2	0.8	385
	60대	62.4	36.2	49.6	1.8	282
전체		58.2	35.4	54.1	0.9	1,618

- 주: 1) "어떤 방법으로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도난방지장치, 화재방지 등이 포함됨
 3) 보험가입에는 집(종합)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재산보험이나 풍수해보험 가입이 포함됨

3) 사이버 사고

재산상의 손해 관련 위험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사이버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염려정도의 평균 점수는 3.69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 50대, 40대 및 20대 이하, 30대 순으로 염려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염려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33〉 사이버사고(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려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매우 걱정								
연령대	20대 이하	7.9	14.1	20.3	29.3	22.0	6.5	3.63	355
	30대	7.8	18.9	20.3	27.0	18.9	7.0	3.51	344
	40대	4.1	19.7	20.1	28.3	20.6	7.2	3.63	417
	50대	2.4	19.0	17.3	29.6	21.2	10.4	3.79	452
	60대	4.5	12.7	16.3	30.1	29.2	7.2	3.89	332
전체	5.2	17.1	18.8	28.9	22.2	7.8	3.69	1,900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에 사이버사고(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걱정되지 않음)에서 6(매우 걱정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사이버사고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4.43**

다음으로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정도는 20대 이하, 60대,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대비정도가 높게 나타나서 가장 젊은 연령대인 20대 이하의 대비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II-34〉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 점수	응답자 수
		-----> 충분히 준비							
연령대	20대 이하	13.0	21.1	26.8	23.7	10.7	4.8	3.12	355
	30대	20.3	25.6	25.6	18.0	7.6	2.9	2.76	344
	40대	13.4	29.3	26.4	22.3	7.0	1.7	2.85	417
	50대	15.9	30.1	27.9	19.7	5.8	0.7	2.71	452
	60대	20.2	24.7	24.4	19.9	9.9	0.9	2.77	332
전체		16.4	26.5	26.3	20.7	8.0	2.1	2.84	1,900

- 주: 1) "귀하께서는 평소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1(전혀 준비하지 못함)에서 6(충분히 준비함)으로 점수가 상승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증가함
 3) 평균차이 검정 F-값: 6.26***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으로 사이버보험 가입,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비밀번호 관리, 디지털계정 로그인에 다중 승인 사용, 기타 사유를 포함해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비밀번호 관리,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디지털계정 로그인에 다중 승인 사용, 사이버보험 가입, 기타 순으로 사이버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2.7%에 불과해 매우 미미했다. 연령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나 세대보다 비밀번호 관리를 통한 위험 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다른 응답자보다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위험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 사이버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다중 응답)

(단위: %, 명)

구분	사이버보험 가입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비밀번호 관리	디지털계정 로그인에 다중 승인 사용	기타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3.9	66.0	66.3	40.5	1.0	309
	30대	2.2	58.4	61.7	43.1	1.5	274
	40대	3.3	62.9	67.6	35.2	2.2	361
	50대	1.8	58.4	70.3	26.3	2.6	380
	60대	2.3	62.3	77.4	24.9	1.9	265
전체		2.7	61.5	68.6	33.7	1.9	1,589

- 주: 1) "어떤 방법으로 사이버 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에 백신프로그램이 포함됨
 3) 비밀번호 관리에는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이 포함됨

바. 종합

종합하면, 건강 및 간병 위험영역에서는 신체건강 위협의 경우 4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대비수준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20대의 경우 신체건강 위협에 대한 염려 수준과 대비수준이 모두 낮았다. 정신건강 위협의 경우 3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으나, 60대의 대비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60대의 정신건강 위협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았고, 대비수준은 40대가 가장 낮았다. 본인간병 위협의 경우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5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고, 대비수준은 60대가 가장 높았다. 반면, 연령대가 가장 낮은 20대는 본인간병 위협에 대한 염려 수준과 대비수준이 모두 낮았다. 자신의 간병이 아닌 가족을 위한 간병위험의 경우 5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20대의 대비수준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또한, 20대는 가족을 위한 간병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았으나, 대비수준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30대였다.

〈표 III-36〉 염려정도 및 대비정도: 건강 및 간병위험

구분		신체건강		정신건강		본인간병		가족간병	
		염려	대비	염려	대비	염려	대비	염려	대비
가장 높음	연령대	40	30	30	60	50	60	50	20
가장 낮음	연령대	20	20	60	40	20	20	20	30

주: '20'은 20대 이하, '30'은 30대, '40'은 40대, '50'은 50대, '60'은 60대를 각각 의미함

은퇴 및 사망 위험영역의 연령대별 염려 및 대비정도를 정리하면, 은퇴준비 위험에 있어서 40대의 염려정도가 높은 반면, 대비정도는 60대가 가장 높았다. 20대의 경우 은퇴준비 위험에 있어 염려정도와 대비정도 모두 가장 낮았다. 사망위험의 경우 연령대가 가장 높은 60대의 대비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연령대가 가장 낮은 20대의 대비정도가 가장 낮았다.

〈표 III-37〉 염려정도 및 대비정도: 은퇴준비 및 사망위험

구분		은퇴준비		사망	
		염려	대비	염려	대비
가장 높음	연령대	40	60	-	60
가장 낮음	연령대	20	20	-	20

주: '20'은 20대 이하, '30'은 30대, '40'은 40대, '50'은 50대, '60'은 60대를 각각 의미함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 위험영역을 정리하면, 실직위험의 경우 5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60대의 대비수준이 가장 높았다. 실직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였고, 관련 대비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였다. 폐업위험의 경우 6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40대가 가장 높았다. 30대는 폐업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았고, 대비수준은 50대가 가장 낮았다. 배상책임 위험의 경우 6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대비수준은 40대가 가장 높았다. 20대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았고, 대비수준은 30대가 가장 낮았다. 재산손해위험의 경우 40대가 염려 수준 및 대비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였으며, 관련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 대비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사고 위험의 경우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50대의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가장 낮은 20대의 대비수준이 가장 높았다. 30대는 사이버사고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였으며, 대비수준은 50대가 가장 낮았다.

〈표 Ⅲ-38〉 염려정도 및 대비정도: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위험

구분		실직		폐업		배상책임		재산손해		사이버사고	
		염려	대비	염려	대비	염려	대비	염려	대비	염려	대비
가장 높음	연령대	50	60	60	40	60	40	40	40	50	20
가장 낮음	연령대	20	30	30	50	20	30	20	30	30	50

주: '20'은 20대 이하, '30'은 30대, '40'은 40대, '50'은 50대, '60'은 60대를 각각 의미함

이상을 정리하면, 해당 위험에 대해 염려정도가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 반드시 가장 높게 위험에 대해 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위험영역 중 가장 높은 염려정도를 가진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대비를 하고 있는 영역은 오직 재산손해 위험뿐이며, 나머지 영역은 가장 높은 염려정도를 가진 집단과 가장 높은 수준의 대비를 하고 있는 집단이 불일치했다. 신체건강, 본인간병, 은퇴준비 위험영역에서는 염려정도가 가장 낮은 20대 이하가 관련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에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의 특징상 상대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은퇴시기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20대 이하의 경우 신체건강, 본인간병, 은퇴준비 위험에 대한 염려 및 대비수준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준 조사 결과이다. 또한, 사이버사고 위험 관련해서는 50대가 염려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대비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정도 및 대비수준이 가장 높거나 낮은 연령대를 파악해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의 절대적인 분포를 파악하고 연령대별 비교작업을 수행했다.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정도 대비 대비정도 비율을 산출하여 염려 수준에 비해 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떠한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해본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우선 신체건강 위험의 경우 20대 이하가 염려정도 대비 대비정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가 가장 낮았다. 즉, 신체건강에 대한 염려 수준과 대비수준 간의 상대적 격차는 2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 경우 동 비율이 6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아서 신체건강 위험과 마찬가지로 4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간병 위험의 경우 6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았으며, 가족간병위험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았다. 은퇴준비 위험의 경우 60대의 염려 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대비수준이 가장 높았고, 40대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실직위험의 경우 60대가 가장 높았고, 40대가 가장 낮았으며, 폐업위험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았고, 50대가 가장 낮았다.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은 60대가 가장 높았고, 20대가 가장 낮았으며, 재산손해위험의 경우 6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사고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절대적인 분포를 통한 비교 결과와 더불어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건강 위험의 경우 염려 수준과 대비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20대 이하였는데,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은 가장 높았다. 또한, 40대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데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손해위험의 경우 30대의 대비수준이 가장 낮은데,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의 비율도 가장 낮았다. 이처럼 염려 수준이 가장 높거나, 대비수준이 가장 낮으면서 염려 수준 대비 대비수준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해당 위험에 대한 관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각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39〉 염려정도 대비 대비정도 비율: 전체 위험

구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본인 간병	가족 간병	은퇴 준비	실직	폐업	배상 책임	재산 손해	사이버 사고
20	1.02	1.21	0.70	1.19	0.79	1.35	1.33	0.91	1.03	1.03
30	0.98	1.21	0.74	0.58	0.83	1.16	1.82	0.97	0.92	0.94
40	0.94	1.20	0.74	0.82	0.74	1.09	1.08	1.04	1.04	0.94
50	0.97	1.41	0.74	0.63	0.79	1.10	0.99	1.01	1.00	0.81
60	0.98	1.66	0.78	0.68	1.11	1.40	1.12	1.09	1.05	0.85

주: 1) '20'은 20대 이하, '30'은 30대, '40'은 40대, '50'은 50대, '60'은 60대를 각각 의미함
 2) 각각의 수치는 응답자의 개별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 점수(6점 만점)를 염려정도 점수(6점 만점)로 나눈 값의 연령대별 평균임

한편, 건강 및 간병위험에 대해 1순위로 응답된 대비방법을 살펴보면, 신체건강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보험가입이 가장 선호되었다. 60대는 정기건강검진이 가장 높게 응답된 신체건강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이었다. 정신건강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에서도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명상이 높게 선호된 위험대비 방법이었으며, 60대는 사회활동이 가장 높게 선호된 위험대비 방법이었다. 본인간병 및 가족간병 위험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에서 공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위험을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1순위 대비방법이었으나, 20대 이하의 경우 본인간병위험 및 가족간병 위험에 대한 1순위 대비방법이 저축이었다. 40대의 경우도 가족간병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으로 저축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Ⅲ-40〉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 건강 및 간병위험(1순위)

구분	신체건강	정신건강	본인간병	가족간병
20대 이하	보험가입	명상	저축	저축
30대	보험가입	명상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40대	보험가입	명상	장기요양보험	저축
50대	보험가입	명상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60대	정기건강검진	사회활동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은퇴 및 소득흐름 위험에 대해 1순위로 응답된 방법은 은퇴 준비위험의 경우 모든 연령대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또한, 부채상환 위험의 경우도 모든 연령대가 개인저축을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II-41〉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 은퇴준비 및 소득흐름 위험(1순위)

구분	은퇴준비	부채상환
20대 이하	국민연금	저축
30대	국민연금	저축
40대	국민연금	저축
50대	국민연금	저축
60대	국민연금	저축

실직위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훈련이 가장 높게 응답된 대비방법이었다. 폐업 위험의 경우에도 실직위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저축이 가장 높게 응답된 대비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상책임 위험의 경우 40대, 50대에서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 대비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20대 이하 및 30대는 저축, 60대는 예방을 위한 자조적인 노력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재산상 손해 위험의 경우 20대 이하 및 30대는 저축, 40대 이상 연령대는 모두 예방을 위한 자조적인 노력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사고 위험의 경우 모든 연령집단에서 비밀번호관리가 가장 높게 응답된 대비방법이었다.

〈표 III-42〉 연령대별 위험 대비방법: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위험(1순위)

구분	실직	폐업	배상책임	재산상 손해	사이버사고
20대 이하	직업훈련	저축	저축	저축	비밀번호관리
30대	직업훈련	저축	저축	저축	비밀번호관리
40대	직업훈련	저축	보험가입	예방노력	비밀번호관리
50대	직업훈련	저축	보험가입	예방노력	비밀번호관리
60대	직업훈련	저축	예방노력	예방노력	비밀번호관리

이상을 정리하면, 각각의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은 다양했으나, 공적보험(연금)으로 관련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간병위험, 은퇴준비위험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장 높게 응답된 대비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영보험 가입이 위험 대비방법으로 가장 높게 응답된 영역은 신체건강과 배상책임으로만 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보험가입 여부 및 미가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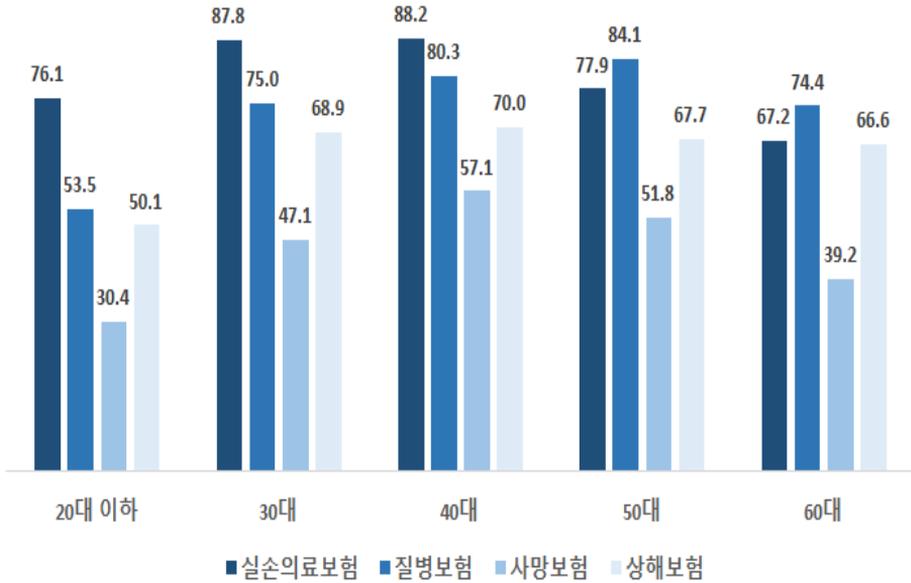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해당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보유 및 가입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상품의 보유 여부와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보험가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건강위험

개인의 건강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을 포함해 보험 보유 및 가입경험을 조사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0대(88.2%)의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30대, 50대, 20대 이하, 60대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실손의료보험의 최대 가입연령이 75세까지이고 유병력자에 대한 가입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60대(67.2%)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은 보험상품 가입조건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질병보험은 암보험, 심혈관질환보험, 치아보험 등을 포함하여 설문하였으며, 50대(84.1%)의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가입률도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의 가입률은 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개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60% 미만으로 나타나서 다른 건강 관련 보험상품보다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40대 및 50대의 가입률이 5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는 높았다. 상해보험은 재해보험, 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을 포함해 조사했으며, 40대, 30대, 50대, 60대, 20대 이하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가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낮았다. 연령대별 보험가입률의 차이는 모든 보험 종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림 III-1〉 연령대별 건강 관련 보험상품 보유 여부

(단위: %, 명)



- 주: 1) 질병보험에는 암보험, 심혈관질환보험, 치아보험 등이 포함됨
- 2) 사망보험에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이 포함됨
- 3) 상해보험에는 재해보험, 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이 포함됨
- 4) 실손의료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17.83***
- 5) 질병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29.30***
- 6) 사망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17.52***
- 7) 상해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11.01***
- 8) 응답자 수: 20대 이하(355), 30대(344), 40대(417), 50대(452), 60대(332)

다음으로 각 건강보험상품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22.1%가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사유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21.6%가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로 실손의료보험에 미가입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인 경우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40대는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30대는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20대 이하는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로 응답하여 연령대별로 미가입 사유에 편차가 있음을 보였다.

〈표 Ⅲ-43〉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12.9	18.8	3.5	5.9	37.6	3.5	12.9	4.7	85
	30대	7.1	19.0	14.3	14.3	16.7	0.0	23.8	4.8	42
	40대	22.4	32.7	14.3	18.4	4.1	0.0	6.1	2.0	49
	50대	29.0	24.0	4.0	4.0	11.0	6.0	14.0	8.0	100
	60대	26.6	19.3	8.3	12.8	5.5	4.6	17.4	5.5	109
전체	21.6	22.1	7.5	9.9	15.1	3.6	14.8	5.5	385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질병보험의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경우 “질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및 60대는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30대 및 40대는 “질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20대 이하는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인 사유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Ⅲ-44〉 질병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11.5	32.1	3.6	11.5	26.1	2.4	15.8	3.6	165
	30대	18.6	23.3	10.5	18.6	15.1	2.3	16.3	2.3	86
	40대	25.6	29.3	4.9	25.6	7.3	0.0	13.4	8.5	82
	50대	29.2	20.8	8.3	29.2	2.8	5.6	23.6	5.6	72
	60대	27.1	23.5	2.4	27.1	5.9	4.7	22.4	5.9	85
전체	20.4	26.9	5.5	20.4	14.1	2.9	17.8	4.9	490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질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사망보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는 부양할 가족이 없어 필요를 느끼지 못해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 및 30대 응답자에 의해 이러한 응답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상은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5〉 사망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11.3	37.7	6.9	4.0	22.7	2.0	13.0	2.4	247
	30대	22.0	39.0	3.8	5.5	11.5	1.1	13.7	3.3	182
	40대	30.7	27.4	10.6	7.3	4.5	1.1	12.3	6.1	179
	50대	28.0	25.2	8.7	8.7	4.6	2.8	18.3	3.7	218
	60대	24.8	24.8	8.9	5.0	5.4	2.5	22.8	5.9	202
전체	22.8	30.9	7.8	6.0	10.3	1.9	16.1	4.2	1,028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부양할 가족이 없음)
 ③ 사망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부양가족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므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상해보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7.8%가 “상해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로 응답해 관련 보험상품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인 사유가 17.9%로 응답해 그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연령 구분없이 “상해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사유로 조사되었다.

〈표 Ⅲ-46〉 상해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5.1	39.5	4.0	2.3	24.3	4.0	16.9	4.0	177
	30대	14.0	33.6	5.6	8.4	15.9	2.8	17.8	1.9	107
	40대	16.0	40.8	6.4	8.0	7.2	1.6	10.4	9.6	125
	50대	13.7	39.7	6.8	4.1	4.1	2.7	21.9	6.8	146
	60대	18.9	33.3	1.8	8.1	3.6	3.6	22.5	8.1	111
전체		12.8	37.8	5.0	5.7	11.9	3.0	17.9	6.0	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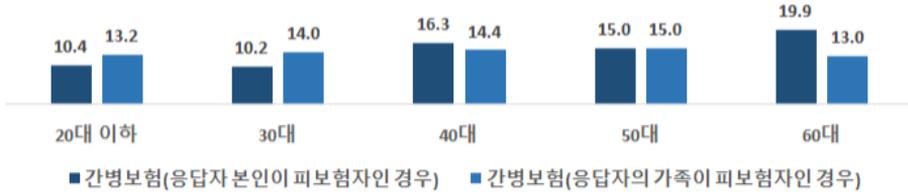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상해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의료비용 관련 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나. 간병위험

건강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응답자가 피보험자인 간병보험 상품 가입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령과 관계없이 대부분 가입률이 20% 미만으로 낮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노화로 인해 본인의 간병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60대가 19.9%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가장 낮은 20대 이하의 가입률이 10.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응답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 50대(15.0%), 40대(14.4%), 30대(14.0%), 20대 이하(13.2%), 60대(13.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간에 보험가입률의 차이는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의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III-2〉 연령대별 간병보험 보유 여부

(단위: %, 명)



- 주: 1) 간병보험을 응답자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와 응답자의 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문함
 2)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4.78***
 3)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0.23
 4) 응답자 수: 20대 이하(355), 30대(344), 40대(417), 50대(452), 60대(332)

본인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서”가 높게 나타났다. 40대를 기점으로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가 나뉘지는데 40대 이상은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서”가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하의 응답자는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가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로 조사되었다.

〈표 III-47〉 본인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6.3	24.5	4.1	2.8	8.8	1.6	11.9	39.0	0.9	318
	30대	17.2	21.4	5.8	7.1	6.1	0.3	16.5	24.9	0.6	309
	40대	21.5	16.0	7.4	8.6	6.0	1.7	17.8	20.1	0.9	349
	50대	27.3	12.8	7.3	7.6	9.4	1.6	18.0	14.6	1.6	384
	60대	26.3	17.7	8.6	9.0	3.0	3.0	20.3	9.4	2.6	266
전체	19.9	18.2	6.6	7.0	6.9	1.6	16.9	21.6	1.3	1,626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간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나의 간병 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보험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도 본인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와 유사한 분포가 나타났다. 50대 및 60대의 경우에는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40대 이하의 경우엔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II-48〉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응답자 수	
연령별	20대 이하	7.8	16.6	5.2	3.2	5.5	1.9	12.7	44.2	1.9	1.0	308
	30대	17.6	12.5	9.5	6.4	4.1	2.7	17.6	28.7	0.7	0.3	296
	40대	21.6	12.9	7.3	8.7	4.5	3.6	16.2	23.0	1.4	0.8	357
	50대	28.1	9.4	7.8	7.8	6.3	1.8	18.5	15.9	1.3	3.1	384
	60대	26.3	13.5	11.4	8.0	4.2	2.1	19.0	9.0	1.4	5.2	289
전체	20.6	12.8	8.1	6.9	5.0	2.4	16.8	23.9	1.3	2.1	1,634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가족(부모님 등) 간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가족의 간병 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⑩ 간병할 가족이 생존해 계시지 않아서

다. 은퇴 위험

은퇴 위험과 관련해서는 먼저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¹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로 응답한 자가 전체 응답자의 42.2%를 차지해 응답자의 상당수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응답한 자도 38.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은퇴했거나, 국민연금을 수급 중일 가능성이 높은 세대인 60대에서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로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알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다.

10)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 혹은 연금 공백 기간이라고도 일컬음

〈표 Ⅲ-49〉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11.3	38.9	49.9	355
	30대	17.6	40.6	41.8	340
	40대	18.8	43.8	37.4	409
	50대	24.5	44.3	31.2	404
	60대	32.7	43.8	23.5	162
전체	19.7	42.2	38.1	1,699	

주: 소득크레바스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함

다음으로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7.9%가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의 경우 34.0%가 ‘현재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보다는 잘 준비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0〉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현재 잘 준비하고 있다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9.3	74.4	16.3	355
	30대	13.2	80.3	6.5	340
	40대	12.0	85.1	2.9	409
	50대	16.6	81.2	2.2	404
	60대	34.0	54.3	11.7	162
전체	14.9	77.9	7.2	1,670	

주: 소득크레바스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함

은퇴소득 관련 위험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연금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복응답을 허용해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예상대로 강제 가입 성격을 갖고 있는 공적연금의 가입률이 69.2%로 가장 높았고, 퇴직연금이 38.6%, 개인연금 38.0%, 미가입 10.8%, 모르겠음 5.7%의 순으로 높았으며, 주택연금 가입률은 0.6%로 매우 낮았다. 연령별로 비슷한 가입 분포를 보였으나, 50대 및 60대의 경우엔 개인연금 가입률이 퇴직연금 가입률보다 다소 높았다.

〈표 III-51〉 연금 보유 여부(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미가입	모르겠음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44.8	24.8	20.3	0.0	23.1	16.6	355
	30대	69.4	47.1	37.9	0.0	7.9	4.1	340
	40대	72.4	41.8	40.6	0.0	9.3	2.9	409
	50대	81.7	42.6	47.3	1.5	6.2	1.2	404
	60대	83.3	32.7	47.5	2.5	4.9	3.1	162
전체		69.2	38.6	38.0	0.6	10.8	5.7	1,670

- 주: 1)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포함됨
 2)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등이 포함됨
 3)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일반 및 변액) 등이 포함됨

개인의 가입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미가입 사유를 조사하였는데, 먼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을 포함한 개인연금의 미가입 사유에 대해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소득부족으로 저축 여력이 없어서'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5%로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를 선택한 응답자도 22.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소득부족으로 저축 여력이 없어서'를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로 응답한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가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로 조사되었다.

〈표 Ⅲ-52〉 개인연금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3.9	9.2	5.3	5.3	34.3	42.0	283
	30대	6.6	14.7	4.7	7.1	42.7	24.2	220
	40대	3.7	16.0	5.3	7.8	53.9	13.2	245
	50대	3.8	9.9	7.0	4.7	65.7	8.9	219
	60대	2.4	10.6	4.7	5.9	63.5	12.9	88
전체		4.3	12.2	5.5	6.2	49.5	22.4	1,055

주: 1)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이 포함됨

- 2) ① 수수료가 비싸서
 ② 수익률이 낮아서
 ③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할 것 같아서
 ④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은퇴소득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⑤ 소득부족으로 저축 여력이 없어서
 ⑥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주택연금 가입조건인 55세 이상이면서, 주택연금에 미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집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입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보유주택 수, 주택가격 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서 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높았다. 50대의 경우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은퇴소득을 해결할 수 있어서’가 ‘가입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보유주택 수, 주택가격 등)’,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어서’,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의 사유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다른 연금의 수급기에 접어든 응답자일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할 것 같아서’가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은퇴소득을 해결할 수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어서’,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보다 높은 비율의 사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3〉 주택연금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응답자 수
연령별	50대	25.5	14.9	14.9	18.1	12.8	13.8	94
	60대	20.3	20.3	17.7	10.8	17.1	13.9	159
전체		22.2	18.3	16.7	13.5	15.5	13.9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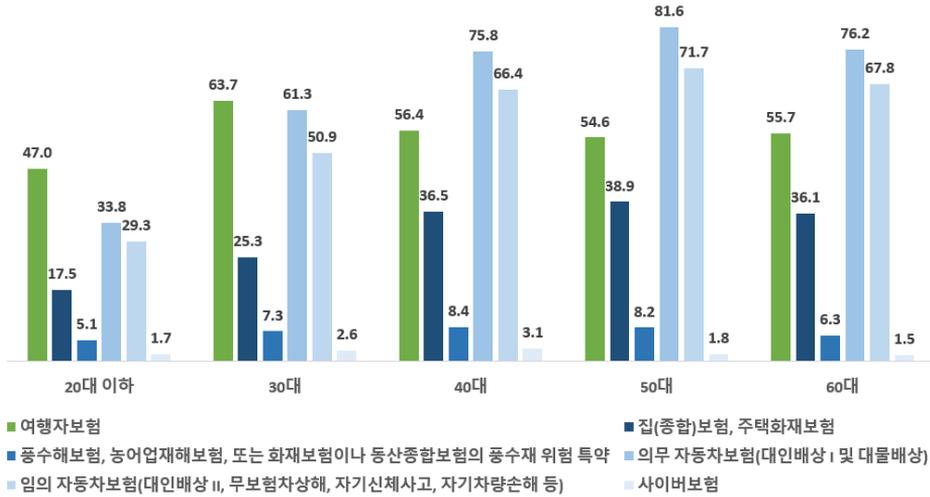
- 주: ① 집을 갖고 있지 않아서
 ② 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보유주택 수, 주택가격 등)
 ③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할 것 같아서
 ④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은퇴소득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어서
 ⑥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라. 재산손해 관련 위험

재산손해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여행자보험, 집(종합)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 또는 화재보험·동산종합보험의 풍수해위험 특약, 의무자동차보험, 임의자동차보험, 사이버보험으로 구분해 가입경험 및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연령별 여행자보험의 가입경험을 살펴보면, 30대의 가입경험이 63.7%로 가장 높았고, 40대, 60대, 50대, 20대 이하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종합)보험 및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상이 40대 미만의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입률은 모든 연령대가 40% 미만의 보유 비율을 나타냈다.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또는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의 풍수재위험 특약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보험의 보유는 모든 연령대가 10% 미만의 미미한 보유비율을 나타냈다.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의 의무자동차보험은 50대가 81.6%, 40대가 75.8%, 60대가 76.2%로 높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도 61.3%의 보유비율을 보였다. 가장 연령이 낮은 20대 이하의 경우 33.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았다. 대인배상II,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하는 임의자동차보험 경우에도 유사한 연령대별 보유 비율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 걸쳐 4% 미만의 매우 낮은 보유율을 보였으나, 40대 응답자의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60대 응답자의 비율이 1.5%로 가장 낮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령대 간 차이는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또는 풍수해위험 특약과 사이버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림 III-3〉 연령대별 재산손해 관련 보험가입 경험 및 보유 여부

(단위: %, 명)



- 주: 1) 여행자보험은 가입 경험임
 2) 집(종합)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또는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의 풍수재위험특약, 의무자동차보험, 임의자동차보험, 사이버보험은 보유 여부임
 3) 여행자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4.99***
 4) 집(종합)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14.99***
 5)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또는 풍수해위험 특약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1.09
 6) 의무자동차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72.49***
 7) 임의자동차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51.82***
 8) 사이버보험 가입 관련 평균차이 검정 F-값: 0.88
 9) 응답자 수: 20대 이하(355), 30대(344), 40대(417), 50대(452), 60대(332)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본 적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 '여행자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40% 이상으로 조사되어서 다른 이유의 비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이하 경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의 사유가 3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행자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의 사유에 관해선 50대가 가장 높게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4〉 여행자보험 미가입 경험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6.4	41.5	5.3	0.5	5.9	1.6	6.4	31.9	0.5	188
	30대	8.8	39.2	3.2	3.2	8.0	0.8	9.6	26.4	0.8	125
	40대	8.8	46.7	4.4	3.8	6.6	1.1	7.7	18.7	2.2	182
	50대	7.3	54.1	2.9	4.4	6.8	1.5	6.3	15.6	1.0	205
	60대	5.4	45.6	2.0	4.1	4.1	0.7	6.8	27.9	3.4	147
전체	7.3	46.0	3.7	3.2	6.3	1.2	7.2	23.6	1.5	847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여행자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여행지에서 발생한 손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다음으로 집보험 및 주택화재 보험 미가입 사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20대 이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미가입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가 가장 높은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의 사유도 모든 연령대 및 세대가 15% 내외의 비율을 보여 '집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와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55〉 집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6.1	26.6	2.4	4.1	5.1	1.7	16.7	35.8	1.4	293
	30대	7.8	35.4	4.7	7.0	4.3	0.8	11.7	26.8	1.6	257
	40대	13.2	44.5	5.3	3.8	6.0	1.9	11.7	10.9	2.6	265
	50대	10.9	41.3	4.7	6.5	6.5	2.2	14.9	9.4	3.6	276
	60대	14.2	43.9	1.4	4.2	5.2	0.5	16.5	10.4	3.8	212
전체	10.2	37.9	3.8	5.1	5.4	1.5	14.3	19.3	2.5	1,303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집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발생가능한 주택관련 손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자연재해 보장과 관련 있는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풍수재위험 특약 등의 미가입 사유는 연령대와 관련 없이 일관적으로 ‘풍수해를 입을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40대 및 50대의 경우 ‘풍수해를 입을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의 사유가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6〉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풍수재위험 특약 등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4.7	40.4	4.7	4.2	4.2	1.5	9.5	30.0	0.9	337
	30대	5.3	39.5	1.6	4.1	5.0	3.4	8.2	32.3	0.6	319
	40대	8.4	51.3	5.0	5.8	3.4	1.8	6.8	16.5	1.0	382
	50대	6.3	54.5	2.2	3.9	3.1	1.2	9.6	17.6	1.7	415
	60대	8.7	51.1	3.2	1.6	5.1	1.3	11.6	15.8	1.6	311
전체	6.7	47.8	3.3	4.0	4.1	1.8	9.1	22.1	1.2	1,764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풍수해를 입을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발생 가능한 손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연령별 임의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임의자동차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이하 및 30대의 경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도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57〉 임의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6.8	38.6	2.4	2.8	2.4	2.4	10.0	31.5	3.2	251
	30대	3.0	36.7	8.3	3.6	1.8	1.8	9.5	30.8	4.7	169
	40대	7.1	39.3	6.4	3.6	5.0	2.1	5.7	25.0	5.7	140
	50대	5.5	41.4	4.7	4.7	10.9	0.0	14.8	13.3	4.7	128
	60대	12.1	30.8	0.9	5.6	6.5	0.9	20.6	16.8	5.6	107
전체	6.5	37.7	4.5	3.8	4.7	1.6	11.3	25.3	4.5	795	

주: 1) 임의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Ⅱ,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됨

- 2)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 ② 임의자동차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발생 가능한 손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사이버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사이버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가 36.5%로 가장 높았고,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가 36.0%로 그 뒤를 이었다. 비록 비율에 큰 차이가 있으나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가 6.9%로 그다음 순위의 미가입 사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사이버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의 사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58〉 사이버보험 미가입 사유(1순위 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4.6	30.4	4.3	2.6	5.4	1.7	9.2	41.0	0.9	349
	30대	2.7	33.1	2.1	6.0	6.6	2.7	4.8	41.5	0.6	335
	40대	7.9	39.9	2.5	3.7	7.2	1.5	5.7	31.2	0.5	404
	50대	5.4	37.8	1.6	3.4	7.2	1.6	6.8	35.8	0.5	444
	60대	4.9	40.7	1.5	3.1	8.0	1.2	8.6	31.2	0.9	327
전체	5.2	36.5	2.4	3.7	6.9	1.7	6.9	36.0	0.6	1,859	

- 주: ①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② 사이버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③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서
 ④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보상 제외 항목 때문에
 ⑤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⑥ 보험금청구 상황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지 않아서
 ⑦ 소득부족으로 가입 여력이 없어서
 ⑧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⑨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묶여 있는 상품만 있어서

마지막으로 홍수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가정해 응답자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임'이 26.5%로 가장 높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일정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불할 것임'이 21.6%, '어떤 사고/상황이 내가 가입한 보험에 포함되는지 확실치 않음'이 18.2%, '정확한 보장이거나 보장 제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확실치 않음'이 14.9%, '모르겠음/대답하고 싶지 않음'이 12.5%, '내가 가입한 보험이 모든 또는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장할 것임'이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정부지원에 의존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임'이 대부분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40대 응답자의 경우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일정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불할 것임'이 25.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